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성미영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Disaster Preparedness for Young Children

Miyoung Sung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

1. 서론

영유아는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유아에게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주체인 보육교사가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보육시설에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태를 살펴 보았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선행연구(강기숙, 2000; 심용옥, 2005; 이종경, 2001)에서 사용한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질문지를 검토하여 방재프로그램에 적절한 방식으로 설문 문항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한 후 서울 및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123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의 연령은 20대가 90명(7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명(21.1%), 40대 이상은 7명

(5.7%)이었다. 교사의 교육수준은 111명(90.2%)이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출신이었으며, 교사경력은 93명(75.6%)이 5년 미만이었고, 시설유형은 민간어린이집이 42명(34.1%), 국공립어린이집이 36명(29.3%)이었다.

3.2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필요성

보육시설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122명(99.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 대상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영유아가 재난대비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명(45.5%), 재난대비 안전교육은 조기에 실시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명(30.1%)이었다.

3.3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내용 선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영유아의 발달수준(64명, 52%)과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44명, 35.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의 항목 중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내용으로 놀이안전(83명, 67.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자연재해 항목은 10개 항목(놀이안전, 교통안전, 학대안전, 미아 및 유괴안전, 스포츠안전, 약물안전, 환경 및 공해안전, 동식물 및 식품안전, 자연재해안전, 화재 및 화상안전) 중 9순위로 지목(30명, 24.4%)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표준보육과정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서 과반수 이상(75명, 67%)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9명(31.7%)은 적당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보육시설

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언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63명(51.2%)은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30명(24.4%)은 소방대피훈련이나 재난대피훈련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3.4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방법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실시횟수에 관한 질문에서 94명(76.4%)의 응답자가 한 달에 1~2회가 적당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시 대상 영유아의 연령은 만 2세(50명, 40.7%), 만 3~4세(37명, 30.1%), 만 1세(32명, 26%)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보육과정에서도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한 '위험한 상황을 알기' 하위내용을 안전한 생활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나이 어린 영아기부터 기초적인 재난대비 관련 교육이 실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실시 주체에 관한 질문에서는 90명(73.2%)의 응답자가 부모, 교사, 안전교육전문가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재난대비 안전교육과 관련한 교사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104명(84.6%)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연수기회가 제공되면 참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122명(99.2%)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연수의 기회는 1년 1~2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64명(52%)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내용으로는 응급처치(72명, 58.5%), 재난시 대피요령(35명, 28.5%) 등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상황이 발생한 후 이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3.5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실태

응답자가 근무하는 보육시설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100명(81.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난대피훈련의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94명(77%)이 실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재난대비 안전교육 관련 교사연수에 참여한 경험을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0명(32.5%)만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사대상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실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23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육교사는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영유아기라는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리고 조기교육의 중요성으로 인해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나이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안전교육의 내용 항목 중에서는 어린이집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놀이안전에 보육교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낮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자연재해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현행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된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육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비중을 높인다면 그와 더불어 교육활동에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실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감사의 글

본 원고는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내배수 침수재해 저감기술 개발)의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1) 강기숙(2000) 유아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모형 개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심용옥(2005) 영유아 보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방법 및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이종경(2001) 유아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